

# 한국 백세인의 의학적 특성

## Clinical Characteristics in Korean Centenarians

최운호(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choismc@samsung.co.kr](mailto:choismc@samsung.co.kr))

김철호(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cheolkim@plaza.snu.ac.kr](mailto:cheolkim@plaza.snu.ac.kr))

박상철(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scpark@snu.ac.kr](mailto:scpark@snu.ac.kr))

최근 초고령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이들에 대한 의학적 관심도 매우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최초로 백세인(百歲人)을 대상으로 신체기능과 인지기능을 포함한 임상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백세인은 총 103명으로 남자가 13명, 여자가 90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102.4세이며 나이의 범위는 100~115세 이었다. 대상자 중 58명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였고, 나머지는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등 지방 거주자였다. 노인의 일상생활활동과 인지기능(CDR)을 평가 하였으며 혈액검사를 통하여 각종 생화학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임상혈액검사 수치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상생활활동 평가 결과도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인지기능 검사에서는 남자의 평가점수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CDR 척도를 사용하여 치매의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피검자 89명 중 55명(61.8%)이 치매로 판명되었다. 생화학적 지표 중에서는 혈청 알부민이 총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인슐린양성장인자(IGF-1) 등과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과도 연관성이 있었다. 혈청 알부민은 임상에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화학 검사이므로 초고령 노인 인구의 임상 진료에서 인지기능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백세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된 100세 이상 초고령자에 대한 체계적인 임상의학적 연구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인 100세 이상장수자에 대한 기초적인 임상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들의 실제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을 위한 신체기능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